

# 뱀파이어 재벌, 족벌, 파벌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해방과 더불어 서양과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온갖 문물이 쏟아져 들어 왔다. 그 중에 귀신도 함께 들어왔다.

뱀파이어도 그 중 하나다. 생사람 피를 빨아먹으며 산다(?). 모든 귀신이 그렇듯이 음습하고 으시시하다. 밤의 권력자다. 해가 뜨고 빛이 나면 맥을 못춘다. 그런데 그 뱀파이어는 두 가지 유별난 점이 있다. 첫째는 피를 빨아 먹힌 생사람이 뱀파이어가 되면서 식구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둘째는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 늙지도 죽지도 못하는 그 자신이 때때로 괴로워하는 걸 보면 그것도 업보이며 천벌인지 모르겠다.

재벌, 족벌, 학벌, 파벌, 군벌.

벌자(閹字)가 들어가는 것치고 좋은 것은 없다. 뱀파이어와 닮은 점이 여러가지다.

재벌이 특히 그렇다.

물론 재벌의 긍정적인 공이 한 때 있었다. 그러나 작금 재벌은 소위 5+3이란 약속과 같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5+3이란 국민의 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해 그들 대표들과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통해 약속한 8개의 원칙을 가리킨다. 5는 초기에 약속했던 경영의 투명성 제고, 주주와 경영진 책임성 강화, 상호 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개선과 업종전문화를 말한다.

1년이 지나면서 3이 추가 됐다. 재벌의 금융지배 차단, 순환 출자규제, 부와 경영권의 변칙상속차단이 그것이다. 그러나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약속, 개혁의 실천은 아직도 미흡하고 요원하기까지 한 것 같다. 게다가 이미 기아, 한보와 진로그룹 그리고 대우그룹 등처럼 국민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을 보면 뱀파이어와 닮았다는 것이다.

첫째, 생사람 피를 빨아먹는다는 게 그렇다. 국민의 돈, 은행돈을 정경유착으로 자기 돈처럼 독점적으로 갖다 쓰는 속성을 보라. 방만경영을 일삼다가 결국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 존재하는 국민의 피만 빨아먹는 정도를 넘칠 것 같다. 이제는 태어날

국민의 피까지도 빨아 먹힐 판이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금융기관 부실을 막는데 쏟아 부어졌다. 그것이 물론 정경유착에 따른 금융권 자체의 부패와 무능과 방만경영이 보태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부실채권 때문이다. 한보그룹과 진로그룹 또 대우그룹 등의 처리와 알량한 워크아웃이란 제도로 수십 개의 재벌부실을 안고 신음하는데 들어가는 국민의 피가 바로 공적자금이다.

공적자금 투입과 회수가 계획대로 말대로 될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 공적자금이 얼마나 들어갔고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몰라서하는 말이다.

둘째, 뱀파이어에게 물린 생사람 역시 뱀파이어가 되는 것처럼 상호 출자 등으로 계열사를 만들고 거느리며 선단식 경영으로 패거리를 지어 모든 폐악을 저지른다는 점이다. 많은 계열사가 이익을 못 내고 있으면서도 퇴출이 안된다. 이 점도 죽지도 못하는 뱀파이어와 같다.

셋째, 늙지도 죽지도 못한다는 점이 답았다.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자본과 경영이 세습되는 것이 결국 늙지도 죽지도 못하는 뱀파이어가 아닌가. 북한의 권력세습을 흉볼 처지가 아니다. 거기다 요즘 한국의 대표적 재벌의 왕자의 난까지 구경해야하는 국민들은 정말 피곤하고 재미없다. 가신은 이제 정치권에만 쓰는 용어가 아니다. 가신경영이란 교과서에 듣고 보지도 못한 용어가 인구에 회자된다. 재벌, 족벌, 파벌, 삼벌(三閥)의 삼중주를 국민은 정말 감상하기 죽을 지경이다.

FILA 코리아를 보라. 빗없이 충분한 자기 자본으로 협력업체에 대금을 현찰로 지불해 가면서 서로상생(Win-Win)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빛나는 태양아래 또한 투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귀신이 아닌 이런 맑은 천사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